

어머니 The Mothers

아름다운 기업-금호건설



지중해 피에르가르댕 별장에서...

담고 싶은게 너무 많은, 그녀는 와이프로거!

감탄으로만 끝난다면 그녀가 아니다.
지중해 피에르가르댕 별장의 화려함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조명,
그녀는 그 빛을 어울림 속으로 담아왔다!

여자가 빛나  어울림


금호건설

溫故知新

최악의 대결 시나리오 점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여러 범여권 후보를 하나로 묶자는 협상이 진짜로 벌어질까? 야당 후보들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협상한다면 모를까, 갈기갈기 찢어져 난립한 이른바 범여권 후보를 하나로 묶자는 협상을 벌이겠다는 건 도무지 생뚱맞다.

야당의 이명박(李明博)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라는 게 명분이지만 괜히 장만 시끄럽게 벌이고 말게 뻔하다.

그 중심 세력은 누구인가. 누가 주선을 하고 크고 작은 심부름을 할 것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기에는 성공의 확률이 너무 낮다.

흔해빠진 상투적인 말로 ‘국민의 뜻’을 들먹거리지만 그건 일종의 자기최면일 뿐,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문사에 지나지 않는다.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서로의 당내 사정 등을 환



趙 庸 中

· 본회 자문위원
· 전 연합뉴스 사장

히 꿰뚫고 있는 판에 누가 대등한 협상에 응하겠는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앞날의 계산이 다른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협상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앞으로 두 달 동안에 기적적으로 협상이 성사되어 단일후보가 탄생한다면 선거전의 양상은 확 달라질 것이다. 범여권의 누구와 싸워도 낙승할 것이라는 여론조사에 안주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그런 극한상황까지를 상정해야 하는 게 선거전의 사전 점검이 아닐까 싶다.

이명박 후보를 내세운 한나라당은 야당다운 투지도 없고 따라서 문제 제기도 없는 점잖은 야당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의 말대로 권력은 총부리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투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거듭 명심해야 할 때이다.

반세기 전, 민주당의 신익희(申翼熙), 진보당의 조봉암(曹奉岩) 두 야당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벌였을 때는 이승만(李承晩)의 장기집권에 넌더리가 났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선거구호가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었다. 신·조 두 후보는 다 같이 대중의 인기도 컸지만 내심으로는 ‘이번에는 신익희’라는 암묵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진전이 될 수 있었다.

불행히도 신익희 후보가 투표를 열흘 앞두고 호남선 열차 안에서 서거하는 바람에 협상이 물거품이 된 것은 아쉬운 역사의 한 토막이다. 두 후보는 신익희가 이리(裡里)유세에서 돌아오면 신 후보로 단일 후보를 발표한다는 비밀 약속을 했었다. ㉞

클릭! 이 한마디 평양회담 이후 잠꼬대 듣고 있자니...

이 무슨 헛소리들인지

남북정상회담 이후 쏟아져 나오는 잠꼬대들을 듣고 있노라면 한국의 지성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참한 지경이었는지 새삼 놀라게 된다.

‘사람이 살고 있었네’류의 말초적 감상문에서부터 북한 동포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는 회고담과, 아리랑에 박수를 쳤네 안쳤네 하는 고위 당국자들의 객쩍은 농담 짓거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정말이지 고역이다.

그런 수작은 이미 지드와 사르트르의 우스꽝스런 소련 찬양기(記)에서 종을 친 줄 알았더니 이 무슨 헛소리들인지 모르겠다.

조지 오웰이 혁명의 열정을 찬양했던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회색빛 암울한 독재자 ‘1984년’으로 지적 편력을 걸어갔던 것도 한국의 자칭 문화인들에게는 남의 이야기다.

아리랑에서 체제 선전 부분만 빼면 놀랍도록 웅장한 예술작품이라고 뉘두리를 늘어놓는 3류 역사 소설가나 장엄한 서정시(?)라고 앞뒤 없이 내뱉는 장관이나 그것으로 관광 상품을 만들면 좋은 외화벌이가 될 것이라는 얼치기 좌파들의 주장에 이르면 이들이 지성은커녕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정 규 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 한국경제 10월 16일 ‘다산칼럼’에서

北의 어둠엔 눈감고 입 봉해

루카치*는 만년에 “최선의 자본주의보다 최악의 사회주의가 낫다”는 말을 남겼다. 사상가의 발언이기보다 현실에 눈먼 이데올로기의 망언이다. 뒤늦게 망자를 함담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실패한 실험과 전체주의의 옛 꿈에 미련을 갖고 있는 듯한 인사들이 ‘진보’를 자처하는 기현상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우리 쪽 그늘에 대해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만 북의 어둠에 대해선 눈감고 입 봉하고 참선한다. 루카치의 망언을 연상하게 한다.

강제 수용소나 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가 없다든지 전체주의 선전물에 대해 감동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자기 기만적 자유에 속한다. 문제는 그런 시대 역행적 사고의 인사들이 진보를 자처하며 국민을 헛갈리게 한다는 점이다. **대권 지망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선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루카치(1885~1971): 헝가리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자 문학사가(文學史家).
(편집자 주)

유 종 호 (문학평론가·전 연세대 특임교수)
· 동아일보 10월 8일 ‘유종호 칼럼’에서

‘아리랑’과 盧대통령의 웃음

김정일의 가장 ‘통 큰’ 거짓 쇼인 ‘아리랑’을 보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던 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보면서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초창기를 떠올린 건 결코 우연일 수 없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도록

온갖 압박과 방해로 했던 현 정권이니까. 그들이 김정일의 쇼 ‘아리랑’을 보면서는 환하게 웃었다...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며 거짓 웃음을 연출한 그들에게 뮤지컬 ‘요덕스토리’ 연출자로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당신들은 그들의 눈에 어린 피눈물을 보았습니까?”

정 성 산 (뮤지컬 ‘요덕스토리’ 총제작·연출)
· 문화일보 10월 5일 ‘포럼’에서

* 동의합니까?

• 김정일 옹호하는 친북좌파의 ‘평양이야기’

· 마지막으로 제방이 연결되고 참여한 모든 인민들의 눈물과 함성이 터지는 그 순간, 옆에 계시던 조정래 선생이 핑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조정래 선생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니까 덩달아 눈물이 나왔다. 조 선생은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였다. 길거리에서도 내가 김일성 동상을 찍으니까 위를 찌지 말고 밑을 찍으라고 하신다. 그 밑에는 몇 송이 꽃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체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꽃송이에 담긴 인민의 순결한 마음 그 자체야 왜곡할 건덕지가 없지요.”

도올고함 - ‘북한 인민은 무엇을 꿈 꿀까’에서 (10월 10일

중앙일보 : 글 김용욱)

· 2007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도올 김용욱**(세명대 석좌교수) 중앙일보 기자의 특별 강연이 10월 7일 오후 8시 KBS1-TV를 통해 방영됐다.

그는 “개성 시대를 통과하며 본 북한에 대한 첫 인상은 실망”이라고 털어놓았다. 특히 ‘연출된 풍경’을 아쉬워했다. 이어 평양 시내에 운집한 인파의 환호성을 접하고서는 “이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하나”하는 생각에 밤새 고민했다고 했다.

이같은 고민을 동행한 **백낙청**(‘창비’ 편집인)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토로했고, “나도 공감하나 그

모습에 대해 우리도 책임이 있다. 저 역사를 우리도 참여해 만든 것이다”라는 백 교수의 지적에 생각을 고쳐먹게 됐다고 했다.

·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동국대 석좌교수)씨는 10월 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평양회담과 관련한 남한 언론의 보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김정일 정권을 옹호했다.

그는 김정일에 대해 “그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백화원 초대소에서 악수를 할 때 ‘태백산맥’ 작가라고 소개를 하니가 피곤했던 표정이 밝게 변하면서 잡았던 손을 더 힘주어 잡는데 손이 으스러질 정도로 힘이 강했다”고 전했다.

尹世榮 SBS회장 · 李孝桂 송실대총장

본회 명예회원 추대



· 윤세영 회장



· 이효계 총장

본회 발전에 기여한 SBS방송 윤세영(尹世榮 · 71)회장과 송실대학교 이효계(李孝桂 · 72)총장이 11월 1일자로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이곳이 금강산”... 가을정취 만끽

본회 산악회 10월 26일 대둔산 단풍산행

협곡의 계곡 대둔산(높이 878m)은 요즘 붉게 물든 단풍과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자연의 대 향연장. 본회 산악회(회장 조창화)는 지난 10월 26일 이곳에서 울가를 즐거운 단합 산행 행사를 치렀다.(사진)

가을산행에는 김재영, 송두빈, 이억순, 이구열, 지용우, 윤익한, 임응식 회우 등 40여명의 산악회우들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프레스센터 앞에서 관광버스로 출발, 10시3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A팀은 수락리, 제1폭포, 군지폭포, 220계단으로, B팀은 케이블카, 등산바위, 구름다리, 삼선계단 을 거쳐 정상합류, 3시간의 산행을 했다.

이날 산행에 산우들 건강에 큰 관심을 갖고 본회 제재형회장의 격려금, 그리고 김재영, 지용우, 안종우, 이용호, 정운중, 최의호 회우 등이 각각 찬조금을 내주어 즐거운 건강산행과 우정을 다지며 가을산행을 마쳤다.

♣ 올해 古稀회우(1937년생) 명단 · 축하합니다

김병모 김양섭 김영호 김충기 김호기 동문성 박경석 박광춘 서동구
손기상 송호창 신동식 안평선 윤익한 이인원 이전문 이준우 장순재
장행훈 장효상 조덕연 최경호 최종수(妻) 한기호 형진한 호영진 홍원기
최시중 현소환

♣ 부음

상가 명복을 빕니다



· 류선우(柳善佑)회우가 10월 15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류 회우는 대구 매일신문 정치부장, 편집부국장을 거쳐 한국국제교류재단 감사, 한국언론재단 운영이사를 역임했다. 2005년 둘째 아들인 탤런트(한류스타) 류시원군이 본회에 1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 박실(朴實)회우(본회이사) 모친상= 10월 28일 오전 5시 30분 전북 정읍 아산병원서 별세(향년 91세).

♣ 주소 · 전화 바뀌었습니다

· 김무중(金茂中)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주공A 509동 805호, 우 410-315

♣ 본회 내방 (10월 1~30일)

- 손님 손진문(전 일간스포츠 국장대우 종합편집부장) 김우신 장로(한국 찬송가 공회 총무) 김형기 장로
- 회우 강승훈 구종서 김세경 김재영 김호기 박기병 송두빈 송효빈 신동식 유용현 유한준 윤주영 이상우 이종운 임인흡 조용중 전종열 정운중 지용우 최귀조 홍원기 현영건 황대연

十匙一飯

십 시 일 반

- 찬조금 · 발전기금 기탁 회우

- 윤주영 회우 10만원
- 홍원기 회우 20만원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大韓言論人會 제16대 회장 입후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후보 할 회우는 본회 정관 제13조 ①항 및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30인의 추천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마감 : 2007년 12월 14일(금)

오후 5시

◇등록 서류 :

- ① 추천서 1통 (소정양식)
- ② 등록서 1통 (소정양식)
- ③ 이력서 1통 (명함판 사진 1장)

2007년 11월 1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회장 제재형

■ 회비 내신 회우

· 2007년분
김충기 성백진 이상호 이인원 이창호 장효상 조동표

· 2006년분
김충기(05년 포함) 이인원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 본 회 日誌 (10월)

- 4일 = 제19차 대토론회
- 8일 = 편집회의
- 11일 = 문화역사탐방(도라산역→인천항)
- 12일 = 30년사 편찬회의
한국신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축하
- 26일 = 산악회원 대둔산 등산
- 29일 = 북한 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 출범식

KB

비보이의 몸짓보다
모두를 감동시킨 몸짓이 또 있을까요?



김연아의 스케이트 날보다
더 눈부신 칼날이 또 있을까요?



이승엽의 스윙보다
더 자랑스러운 스윙이 또 있을까요?



5000만명이 함께하는
새로운 1등들의 이야기

국민의 만능입니다

미래를 여는 지혜 —
KB 국민은행

‘언론공작’에 휘둘리지 말라

· 제19회 대토론회 ‘대통령선거와 언론의 보도자세’ ·

토론요지

정병수 전 MBC앵커(사회) : 10월 4일 오늘이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2박3일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보도자세”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선출은 일상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과 장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언론이 정도를 걸음으로써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함)

‘緣’에 좌우되지 않도록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주제 발표자) :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얼마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느냐가 지도자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지고 보면 언론이 선거를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아니더라도,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언론을 조종 통제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 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취재선진화 방안’을 들고 나와 언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언론을 이용하려는 ‘언론공작’은 기승을 부립니다. 언론을 이용하려는 전략 가운데 비열한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 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언론공작’이라고 합니다. 앞호(언론 회보 259호)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만, 언론공작은 민족감정에 호소, 의도적인 정치 이벤트 마련, 희생양 선정, 위증자 동원, 악마화 대상 설정, 가공된 정보 흘리기 등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특히 언론이 정보 흘리기에 속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특정 언론의 횡포와 부도덕성, 오만함 등을 들고 나와 언론을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 언론이 말려들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 언론의 악점의 하나인 지연, 학연, 혈연 등 패거리식 인연의 문화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이 정치권의 조작, 사기, 가공, 회유, 협박 등의 언론공작에 휘둘러 한국정치를 또 한번 후퇴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거티브 기승 우려

황정미 세계일보 정치전문 기자 : 대통령선거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로서 느끼는 고민과 생각을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언론공작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난 8월에 끝난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 후보의 경선과정에서 보여 주었듯이 정책중심의 대결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 문제가 큰 이슈가 됐습



니다. 게다가 범여권측은 ‘한 방’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증문제가 본선에서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폭로된 주장이 언론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심분 동의합니다. 후보 신상, 리더십, 자질에 대한 검증이 후보의 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각 후보 진영이 상대후보에 대한 검증을 내세워 네거티브 공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병수
전 MBC앵커
(사회)



손태규
단국대 교수
(발제자)



황정미
세계일보 기자
(정치전문)

‘정책 大選’ 되게 보도의 질 높여야 언론사들 ‘공정’ 내세우지만 미흡 특정가치 지나친 옹호는 부적절



손영준
국민대 교수
(언론정보학)



이목희
서울신문
논설위원



함성득
고려대 교수
(행정학과)

색깔론이나 위증자 동원은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한번씩 써먹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경선 때처럼 상대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상대후보의 흠집내기 정보가 제기될 경우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라는 가치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언론 매체는 흘리기 정보를 제보 받은 뒤 확인 과정을 거쳐 제보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도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을 검증보도로 봐야 할지, 아니면 특정진영의 고의적,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언론에 흘린 것이기 때문에 언론공작의 부산

물로 봐야 하는지 이것이 현장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같은 정보를 여러 언론사에서 제보 받고도 확인과정을 거쳐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취재를 하고도 그것을 놓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도한 언론사는 의도된 공작에 놀아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사는 특정후보 진영을 도와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이 처한 현실입니다. 정치권에서 얻은 정보를 취재와 확인 과정을 거친 경우는 공정보도의 범주

에 넣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언론공작에 따른 보도라고 해야 할지를 손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선 때 마다 자주 지적받는 내용은 후보의 정책공약을 언론에서 너무 소홀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범여권 후보의 선출이 늦어지면서 각 정당의 후보공약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비교나 정책 검증을 하지 못한 채 네거티브나 후보 개인 검증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정책 보도는 5% 미만이었었고, 그나마도 각 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도보다는 나열식으로도 보도했다는 분석이 나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언론이 정책에 대한 보도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취재 인원의 한계가 없지 않지만 특별취재팀이나 탐사보도팀을 구성해서 정책검증을 시도하는 언론사가 많았으면 합니다.

판세를 앞 다투어 보도하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책 이슈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한다면 대선보도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단 뒤편 유권자에게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간의 긴장 관계가 점점 고조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주제발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 언론공작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선거 상황뿐 아니라 언론은 상시적으로 권력자나 외부

의 뉴스 소스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사람의 생각과 의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저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도되지 않은 사안은 사람의 생각과 의견형성에서 원초적으로 배제됩니다. 언론학의 많은 연구들은 언론보도의 의제 설정과 프레이밍이 사람들의 생각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트 리프만은 언론보도는 길을 밝혀주는 서치 빔(search beam), 전조등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선거는 후보자, 유권자, 언론 3자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언론은 후보자(정당)와 유권자를 연결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0년대 민주당의 프레이저 보고서 이후 정당정치역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가 광범위하게 도입됐습니다. 우리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예비 선거제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선거절차가 바뀌고 있습니다. 유권자와의 접촉이 중요해지면서, 후보나 정당은 ‘대중속으로(Going public)’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론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 상황은 대부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됩니다. 언론은 선거보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의 공정성, 독립성, 객관성이 담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은 정치행위자(Political actor)가 됩니다. 일부에서 주장 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의 수용을 주장하지만, 언론에서 특정한 가치나 이념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의 몫은 유권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언론은 다양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계적 균형 보도 과연 객관적인가

이목희 서울신문 논설위원 : 정치권의 정보 흘리기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치권 인사들과 가까운 기자들이 정보를 많이 가져옵니다. 중립적이거나 정치권 인사들을 모르는 기자를 파견해 놓으면 보도자료 외에는 정보를 갖고 오지 못합니다. 정치권의 흘리기로 얻어온 정보를 기사화 할 때는 망설여지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데스크에서는 검증도 안된 내용을 보도하다가 역풍을 맞는 게 아닌가 하고 망설이고 취재기자는 왜 기사화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기자들은 진보적인데 비해 편집국장 이상이 되면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부 데스크에서 일하다 보면 A후보 캠프에서는 너희들은 B캠프 신문사냐고 나무라고, B후보 캠프에서는 A캠프를 편드느냐고 항의하기 때문에 보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기사의 크기나 양을 같게 보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도하다 보면 이같은 기계적인 균형 보도가 객관적인 보도인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정책보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사실 정책보도는 재미가 없어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보도는 독자들이 외면합니다. 그렇다고 대선 후보들이 딱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두루뭉수리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재미있게 토론할 정책보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탐사팀이나 검증팀을 만들어 보도를 한다지만 계획된 의도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 조사를 자주하게 되는데, 유력 후보 위주로 보도하다 보니 소수정파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합니다. 이런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기자협회나 각 언론사마다 선거보도 준칙을 만들어 공정보도를 다잡하고 정책보도를 지향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미흡합니다. 언론사

사주의 성향에 따르거나 특정 이념을 가진 구성원이 많은 언론사에서는 구성원의 성향을 따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 중립으로 가려는 노력이 언론사마다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현장 취재기자뿐 아니라 편집을 하는 편집자, 담당 부장, 편집국장급에서 자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이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된 시기가 대선을 두 달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폭로전이나 갖가지 이벤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폭로전 바람몰이에 휩쓸려 오도하지 않도록 경계해야겠습니다. 정책보도에도 관심을 가져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보다 방송이 더 문제

함성득 고려대 행정과 교수 :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을 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

는 대단히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최근에 팩스라는 TV가 나와서 보수지향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정책보다는 인물 하나를 놓고 검증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인물 보도보다 정책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정책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 문제, 재벌의 소유와 경영의 문제, 복핵 문제 해결, 정부조직 개편 등 크게 4개로 나누어서 후보와 집중 토론을 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정책은 수백 개에 달합니다. 그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신문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를 기자가 3~4개월씩 집중 취재해서 3~4개면에 걸쳐 자세하게 다룹니다. 후보의 여자친구, 그분의 성격, 성품까지도 다 보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후속보도가 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통령선거방송 토론회는 사회자들만 스타를 만드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미국의 레리 킹처럼

아예 후보 한 사람씩 데리고 나와서 3시간씩 토론하면서 화를 내게했다가 또는 웃겼다가 하는 방법으로 토론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만 발언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후보자 방송 토론은 약점이 있는 사람은 자칫 걸려들기 쉽습니다. 순발력 있게 말 잘하는 사람이 덕을 보는 토론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병수 : 지명토론자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마음에 와닿은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손태규 교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여론조사는 참고의 수단

손태규 교수 : 황 기자께서 제기한 검증과 공작의 한계를 설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기자들이 공작에 휘둘리지 말라고 충고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언론인의 윤리헌장을 강조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수십 페이지에 걸쳐 기자들이 금기시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자의 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적·윤리적 행태와 태도, 자세에 있습니다. 남을 음해하거나 공작의 수단으로 삼는 정보 흘리기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스스로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쓰레기통 저널리즘이니 정치저널리즘이니 하는 것은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리크 문제, 정책보도, 인물보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와 같이 기자들이 특정 정치인에 줄을 대거나 촌지 받고 술 얻어 마시면서 학연, 지연, 패거리 이루는 행태는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정책보도는 미국에서도 재미가 없다고 해서 요즘은 선거 캠프에 직접 들어가서 그날그날 선거를 어떻게 꾸려나갈까 공작적인 측면, 언론 전략적인 측면, 선거 전략과 집행과정 등을 보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정책보도도 중요하지만 인물에 대한 검증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이나 방송보도의 제목으로 뽑는 것은 문제입니다. 숫자가 주는 마력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제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가 3.5%인데 지지도가 1~2%도 안되는 후보까지 보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는 참고의 수단이지 결정의 수단이 아닙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 제19회 대토론회를 끝내고 마지막까지 남은 회우들이 기념촬영

정책검증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말잘하는 후보 덕보는 토론 지양 우리사회에선 ‘인물검증’도 중요

장된 것은 150년이 지난 1925년에 판례로 확정되면서부터입니다. 1950년대 공산주의를 때려잡자는 매카시 선풍이 불면서 언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 후 리크, 즉 정보 흘리기를 나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조직을 보호해야 하느냐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언론공작을 담당했던 사람이 언론인 출신이었습니다. 그 분이 닉슨한테 언론을 충분히 조작하고 공작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닉슨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결국은 대통령 직을 사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각 주에서는 기자들의 취재원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가혹하게 다루고 있어요. 언론이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다가 잘못된 보도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중상이나 무고가 아닌 한 대부분 봐주는 판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위축되지 않도록 약간의 실수에 대해서는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념이 너무 강해 논조의 문제도 생긴다고 봅니다. 신문의 문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경우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양대 방송사인 MBC와 KBS 사장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임명되고, 그 사장을 중심으로 인맥이 구성됩니다. 그 결과 통치자에게는 효율성과 편의함을 주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편향성과 분파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ABC NBC CBS

신문시평

‘풀뿌리 민주주의’도 썩지 않게

올바른 도가 구현되는 사회를 평생 갈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던 공지는 정치의 요체로 국민의 신뢰를 켜왔다. 논어 안연(顔淵)편 7장을 보면 정치가 무엇이라는 제자의 질문에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라를 지킬 병사가 충분한 것, 백성이 위정자를 신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치라고 답하고 있다.

이어 부득이해서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 할 경우 가장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고 묻자 먹는 것을 켜고 다음으로 병사를 들었다. 신뢰가 없으면 살아가도 죽는지만 못하니 백성의 신뢰는 끝까지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제자 자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위정자가 정사를 시행하면 국민은 자기들을 괴롭히기만 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논어 자장(子張)편 10장)

지금으로부터 2천5백년 전 고대 중국 춘추시대에 한 말들인데 현재 우리 상황에 대입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의 신임이라 하면 노무현정권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노대통령과 극소수 지지자들은 나름대로 정당성

대선 등 어수선한 틈타 국민 괴롭히고 있으니

을 주장하지만 사상초유의 탄핵을 당하는 등 임기 내내 불안한 행보를 하며 대다수 국민을 괴롭혀 왔다.

그 정권에 참여한 구 열린우리당 세력의 작금 행태도 마찬가지다. 위정자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와 정치를 걱정하게 만든 한심한 모습을 거리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야당이기에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을 덜 괴롭힌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한나라당을 비롯한 다른 당 의원 및 정치인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위정자들을 잘못 선출한 대가를 국민들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싶은지 지방의원들까지 ‘국민 괴롭히기 운동’이라도 결심한 듯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정활동비 인상이다. 서울 강남구 의회를 선두로 전국 각지 지방의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따라 나서고 있다. 자기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재의 의정비로는 어렵으니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 대다수는 ‘그 동안 뭘 잘 했다고 그러느냐’는 반응이다.

신문은 이같은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진단해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기사화하거나 그나마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너무 많은 뉴스에 밀려 그렇게 된 것을 모를 리 없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각 지방의회가 유급제를 실시한 것만도 주민들은 불만인데 100%안팎의 인상까지 하겠다는 것이 주민 괴롭히기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10월1일자 경향신문 ‘지방의회 뭘 잘했다고’를 비롯, 각 신문에 난 기사를 종합해 보면 경기도 고양, 웅진, 대전, 전남 목포, 신안 등 전국 각지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차갑다.

이런 식이라면 지방자치체가 무슨 필요 있느냐는 불멘 소리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신문은

◆ 요즘 신문엔...

언론에 자물쇠 채우다

끝내 언론에 자물쇠를 채웠다.

청사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노숙’에 나선 기자들! 바로 로비로 내쫓긴 언론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기사 실 대못질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인가?

정부가 이처럼 끈질기고 짓궂게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옥죄는 것을 보면서 언론탄압 현장 어느 기자의 한마디를 떠올리게 된다.



“이런 열정과 집요함, 추진력으로 국정을 챙겼더라면 지금 국가 경쟁력이 이 정도는 아닐텐데...”

(M)

이를 주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좋아 풀뿌리 민주주의지 허울만 멀쩡하고 속은 말라 버린 불모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전반기에 태동한 서울 성북구의 지방의회 평가단 등 각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이런 것도 주목해서 더욱 활성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선진국 주민들의 지방의회 평가활동을 참조하면 그 방향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말, 대선 등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뿌리부터 국민을 괴롭히는 일들을 철저히 막지 않으면 안된다. [M]



朴 連 浩

· 본회 회우
·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방송시평

잘 지껄이면 말을 잘하는 걸까

“방송인들은 말을 잘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 또 “방송쟁이들은 말은 곧 잘 하는데 글 쓰는건 그렇다”는게 맞는 말인가.

TV방송이란게 말(audio)과 영상자료(visual text)로 전개되다 보니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할 것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말을 엉터리로 하는 방송인들이 너무나 많다. 반면에 구어체의 잔잔한 표현으로 출중한 글을 쓰는 글쟁이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본란에서는 말도 안되는 말을 지껄이는 일부 방송인들의 작태를 지적하는데 주력하려고 한다.

라디오가 방송의 주력인 시절에는 방송인들이 잠시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구조적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라디오에서 아무

어지지않은 사투리를 억지로 흉내 낸다든가, 보기 민망한 괴상한 몸짓이나 괴성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등장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리포터들이 방송에 등장하게 된 것은 방송국의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 인원은 부족하고 제작비는 쥐꼬리만큼 나오던 시절 프로그램은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나온 꽤 미숙련공인 리포터들의 투입이었다.

“얼굴 예쁘장하고 말 좀하는 아가씨”들을 몰색하게 되었고 이들을 훈련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채 마이크를 잡게했던 것이다. 방송국의 이러한 속내는 모른 채 TV에 나온다는 일념만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아가씨들은 보수는 불분하고 하루아침에 히로인이 되기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다. 요즘은 여의도 방송국 주변에는 방송학원들이 속속 들어서고 리포터 양성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어느정도 방송에 진출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양성 과정에서 리포터들의 정체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리포터들의 정체성은 무

코미디언·탤런트 흉내 리포터 정체성이 뭔지?

엇인가. 무엇보다 동반출연하는 코미디언이나 탤런트와 확연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상의 압박이 문제라면 차라리 훈련된 아나운서를 활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만약 리포터의 역할이 코미디언이나 탤런트의 아류가 아니라면 리포터들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표준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어느나라 말인지 구별이 안되는 발음으로 속사포처럼 지껄여대는 것은 교정되어야 한다. 말을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정상적인 교양인으로서의 품위와 매너를 가르쳐야 한다. 웃기는 일은 코미디언에게, 능숙한 사투리의 구사는 탤런트에게 맡기고 한국의 평균적인 교양인으로서의 리포터를 기대할 수는 없는가. [M]



趙 昌 化

· 본회 회우
· 전 KBS 기초실장

런 소리도 안 나오면 청취자들은 사고라도 났나하고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려다보니 잠시도 쉬지않고 지껄일 수 밖에 없었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TV시대가 된 오늘에도 라디오시대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잠시도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방송인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지상파 3사가 약속이나 한듯 아침 저녁으로 내 보이는 고향과 시골을 무대로 한 프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리포터, 탤런트, 코미디언들의 씨부렁거림은 도를 지나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딱한것은 리포터들이다. 가령 코미디언이나 탤런트들은 이미 자기네가 구축한 세계에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짓거리, 우스갯소리가 별 저항감 없이 시청자와 라포(공감대)가 형성되지만 그렇지못한 리포터들은 코미디언이나 탤런트들의 연기를 흉내내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메우려하고 있다. 중대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리포터들 가운데는 심지어 다들



· 제2의 극지인 히말라야의 수많은 봉우리 중에서도 유독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환상적인 봉우리 아마다브람(6,856m).

아! 에베레스트... 神秘의 파노라마

조천웅의 *Mountain & Photo*



- 본회회우
- 사진작가
- 신약인

神들의 땅 에베레스트 '칼라 파타르' (5,548m) (下)

숨을 몰아쉬며 정상에 오르니

오늘의 목표는 세계 트래커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가장 가까에서 볼 수 있는 곳 칼라파타르를 가는 날이다. 당초 계획은 베이스 캠프에서 1박을 하고 새벽에 떠나 고락셉을 거쳐 오르기로 했으나 오후에는 대체로 안개가 끼고 또한 베이스 캠프에 많은 캠프가 설치되고 인원이 많아 변경하였다.

새벽 4시 기상. 식사를 끝낸 뒤 행동식 음료수 그리고 상하 오버 트라우저를 준비하고 비교적 가벼운 차림으로 롯지를 떠났다. 고도가 높아서인지 장갑과 양말을 두벌레나 신었는데도 손과 발이 너무나 시리다. 헤드램프를 켜고 1시간정도 오르니 급경사면이 나오고 이곳을 지나니 너덜길 오르막이 시작된다. 고락셉에서 전대원이 건강에 이상 없어 5,000m를 올라 칼라파타르를 향하는데 이대원이 두통을 호소하고 또 송대원은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되는듯하다고 했다. 아침에 출발했던 고락셉으로 세르파를 동행시켜 하산시키니 안타깝고 마음이 착잡했다. 트래킹은 절대 무리해서는 안된다. 고락셉은 '까마귀 무덤'이라는 뜻이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으로 빙하 하단을 형성하는 이른바 모레인 지대이다. 칼라파타르는 고락셉에서 고도 380m정도 이지만 오르는데 3시간 이상 걸린다. 땀이 올라다 보이는 검은 봉우리이지만 고소와 급경사로 인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고통의 발길 속에서도 혁혁 숨소리를 거칠게 내쉬며 정상을 향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면서



· 한 무리의 야크가 짐을 싣고 가는데 대원들이 뒤를 따른다.

한 발짝씩 천천히 오른다. 걷다가 쉬고 또 쉬고... 숨 쉬기조차 어려워진다.

잠시 쉬다가 올라가니 오색의 룡다가 보이는데 먼저 오른 산악부 후배인 이상남(63)과 최옥화(53)가 그 밑에서 쉬고 있다. 웬만한 정상에는 어김없이 펼쳐지는 룡다는 우리 트래커들의 안전을 기원해 주어 마음 든든하다.



· 등반중 투쿨라(4,650m)의 롯지에서 휴식하는 대원들.

雪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이제 거의 다왔다는 마음에 다시 힘을 돋워 오른다. 고락셉을 출발한지 3시간 10분만인 8시 10분에 드디어 올라오니 북쪽으로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푸모리봉(7,145m)이 눈앞에 다가서고 남쪽으로 칸테카, 탐세르크, 정동쪽으로 보석처럼 눈부신 로체(8,516m)로 이어지는 능선과 그 옆에 눈체. 그 너머로 에베레스트는 태양빛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장엄한 신비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니 가슴이 터질듯 벅차오른다. 칼라파타르에 오르니 마음은 오히려 담담해지고 주위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또한 동남쪽으로 아마다브람이 보이고 이어지는 능선이 장관이다. 파노라마로 몇 컷을 촬영하고는 세르파에게 부탁하여 우리도 기념 촬영을 했다. 60대 후반에 세계 젊은이들과 같이 트래킹 코스 중에 가장 험하고 힘든 곳 중의 하나인 칼라파타르를 오르니 내가 보아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정상에 올라오도록 격려를 해준 집안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정상은 지극히 좁고 서쪽은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바람이 세차게 불어 너무 추워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다. 내려오는 데는 1시간 30분정도 걸렸다. 트래킹 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한잔하고 설봉의 아름다움에 도취해 낮 한때를 보내고 밤에는 유유히 떠있는 밝은 달과 별들의 향연이 너무나 황홀하여 기분 좋은 밤을 고락셉에서 보냈다. [4]

노

느 강

하염없

파데

물에

한 지

은 소

영하

중요한

노후

하는

로 완

세상

沫)과

도봉

가장

는 매

나온

따라

로 방

도봉

(路幅

으께

도시

반이

는 차

별이

이다.

도봉

(驛舍

한 건

제한

다. 고

열차

마 좌

영

가 역

아가

기를

해어

서양

〈남

가 아

남

빠지

에도

지금

아니

를 거

도봉

플랫

달리

리 대

영화

이

르루

었다.

“인

것해

해명

지가

것이



김승웅의

클래식 영화 탐험



필자 : 본회 회우 · 박뉴스포럼 대표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 클로드 르루시의

⑥

남과 여

Un homme et une femme



• 탁월한 영상미를 연출한 '남과 여' 포스터.

르망디 해안의 관광휴양지 도빌(Deauville)은 늘 젖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영불(英佛) 해협의 난기류는 세(江) 하구에 잇닿는 이곳에서 특하면 비를 뿌리거나 없는 안개를 내려 덮는다.

에서 도빌에 이르는, 잘 포장된 고속도로도 노상 빗 젖어있다. 파리 도심에서 켠썸한 햇볕을 받으며 출발 동차는 도빌까지의 2백km 구간 어디에선가 한번 쯤 나가를 만난다.

화 〈남과 여〉는 이 도빌과, 도빌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한 무대로 하고있다.

르망디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 비치들 자랑 도빌의 '젖어있음'은, 겨우 3주간의 짧은 즉흥 촬영으로 성되어 그 해의 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함으로써 짝짝 놀라게 했던 이 영화의, 마치 안개의 포말(泡沫)도 같은 배경과 분위기를 이룬다.

밀은 바닷구경을 하고 싶은 파리 사람들을 손쉽게, 또 가장 빠른 시간안에 유혹해 내 력적인 곳이다. 파리 외곽 생클루를 빠져 고속도로 A13 루트는 세느 강의 흐름을 하구를 향해 달려가다가 루앙에서 서쪽으 향을 튼다.

밀로 가는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오면 노퍽 이 좁은 국도가 나타나고, 이윽고 차창에 지는 빗물속에서 인구 5천명 미만의 해안 도빌이 드러난다. 차를 빨리 몰면 1시간 면 주파할 수 있는 이 도로 위에서(정확히 안에서), 젊은 미망인과 상처한 홀아비가 정사(情事)가 이 영화의 이야기 줄거리

밀의 첫 인상은 가장 먼저 눈에 닿는 역사 가 결정지어 준다. 흡사 장난감처럼 화려 물이, 아주 기묘하고 환상적인 느낌을 갖 다. 역에는 떠나고 내리는 승객이 별로 없 파리의 몽파르나스 역과 도빌을 왕복하는 는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 뿐이다. 그나 석은 늘 비어있는 편이라고 한다.

화 〈남과 여〉의 주인공 장 루이와 안느가 만나는 첫 신은 파리행 기차를 놓친 안느 을 빠져나와 딸의 기숙사로 터벅터벅 돌 는데서 시작된다. 역사(驛舍)가 작품의 전 이루고, 거기서 펼쳐지는 인간의 만남과 심에 감상(感傷)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 의 영화작법은 비슷한 것인지 모른다. 과 여〉는 박진감있는 스토리를 지닌 영화 니다.

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 우연히 사랑에 지만, 여자는 과거를 떨치지 못해 정사 중 옛 남자의 환상에 사로잡히고, 그렇다고 남자와의 관계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면서, 결국 지금의 남자를 멀리하려 남자의 차에 타기 절한채, 바로 이 역을 통해 혼자서 기차에 오른다.

밀 역사는 이때 영화에 잠시 배경이 되어준다. 남녀는 품에서 표정없이 헤어진다. 남자는 자신의 차에 올라 기 시작하고, 여자가 기차를 바꿔타는 에브뢰 역에 미 기하고 있다가, 기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포옹한다. 는 거기서 끝난다.

영화의 원작 감독 촬영 편집을 혼자서 해치운 클로드 이는 이 단순하기 이를데 없는 영화를 65년 겨울에 찍 스태프라고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6명 뿐. 간이 정열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기 야 3주 정도" 라고 이 영화의 "짧은 촬영기간"을 그는 했지만, 도빌의 겨울바다가 제공해준 환상적인 이미 아니었다면 그 같은 정열도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 다.



바닷가는 도빌 역에서 4~5백m 거리에 있다. 파도를 피해 묶어 놓은 수 백척의 요트가 장관이다. 해 안을 따라 3~4분 달리면 해수욕장이 나타난다. 영화에서 보던 황량한 겨울 바다는 아니고, 피서인파가 제법 몰려드 는 여름 바다이지만, 물이 차고 파도가 높아 쓸쓸하기는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옷을 벗은 젊은이들이 있는가하면, 두꺼운 옷차림의 노 인들도 있고, 살찐 개들의 프로르나드도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 남녀와, 또 그들의 아들 딸들은 이 바닷가를 산책 한다. 르루시 감독의 카메라는 사전연습이나 로케이션 헌 텅없이 자유자재의 슈팅을 감행한다. 갈매기 떼, 산책하는 노인, 달려가는 개...

카메라는 특히 줌 렌즈의 구사가 탁월한 영상미를 연출 한다. 게다가 적(赤) 청(靑) 황(黃) 등의 모노크롬으로 되

單色の 유혹인가...

도빌(Deauville)은

늘 안개에 젖어

빨강, 노랑, 청색의

모노크롬 '침묵의 화면'에

채색한 중년 독신의 밀회.

아누크 에메의

우수에 찬 연기와

스윙풍의 곡

'男과 女의 삼바' 음악이...

풀이해서 나타나는 화면은 그것이 현재 진행형의 전개이 거나 플래시 백에 이어지는 환상이거나 관계없이 관객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압도해 온다.

모노크롬 처리는 특히 남녀 주인공의 과거를 드러내주 는 데서 재치있게 반복된다. 대화나 설명은 극도로 제약된 다.

클로드 르루시는 이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거의 무영 이었고, 알려졌다고 해도 '괴짜' 로서일 뿐이다. 칸 영화 제의 그랑프리 수상으로 화제의 선풍을 몰아온 뒤에도 그 는 '통속 작가' 라는 평판 이상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는 그런 평판에 조금도 개의치않는 인물이었다.

그가 가진 독립 프러덕션의 이름은 〈필름 13〉. 그가 유 대계라는 사실로 미뤄보면 기독교 문화권에서 금기로 치 부되는 '13'을 굳이 사용하는 그의 기행(奇行)을 짐작할 수 있다.

르루시 감독은 이 영화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출연 배우 의 이름에 거의 일치시켰다.

아누크 에메의 극중 이름이 안느인 것은 '비슷'에 머물 지만, 배우 장 루이 트랭티냥이 남 주인공 장 루이로, 피 에르 바루가 안느의 죽은 남편 피에르로, 발레리 라그랑즈 가 장 루이의 죽은 아내 발레리로, 아역배우 앙트완 시르 가 장 루이의 아들 앙트완으로 나온 것은 매우 고의적(故 意的)이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실명으로 연기한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직업과성격, 애정 편 력 등도 출연 배우들의 실제 직업과 성격, 애정 편력과 일치하는 점은 영화 스토리의 즉흥성과 함께 '장난기' 마저 느끼게 한다.

여우 아누크 에메는 실제로 짐머만, 파파다 키스 등의 영화감독과 함께 산 일이 있고, 이 영화에서 전 남편으로 나오는 피에르 바루 역 시 실제의 전 남편이었는데, 이 영화탐험 당시 는 영국 출신의 영화 감독 겸 배우인 앨버트 파니의 아내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영화로 66년도 그래미 상의 여우 주연상을 받아, 2급 스타에서 일약 톱 스 타로 발돋움했다. 나의 영화탐험 당시 55세였 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74세. 할머니가 꽤있을 것이다.

남우 트랭티냥은 이 영화에서처럼 본래 자동 차 레이서를 지망했던 자동차 경주광이고, 또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자동차 레이서 모리스 트랭티냥의 조카이기도하다.

〈남과 여〉에 출연하기 10년 전 〈그래서 신 (神)은 여인을 좋아한다〉에 브리짓 바르도와 공연한 것을 계기로, 그녀를 짝사랑한 끝에 권 총 자살소동까지 벌였던 순정파인데, 르루시 감독은 바로 그의 이같은 점을 이용해서 장 루 이라는 실명으로 연기를 하게 했던 것이다.

〈남과 여〉에는 빼놓을 수 없는 후일담이 한 가지 있다. 이 영화 탐험을 마치고 도빌에서 돌 아온지 1년이 지난 86년의 일이다. 파리 상젤리 제 영화 가(街)에 〈남과 여- 벌써 20년〉이라는 제목의 색다른 영화가 개봉돼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이 영화가 나온지 만 20년 되던 해의 일이다. 새로 나온 영화에는 이미 50대 중반이 넘은 에메와 트랭티 냥 두 주인공이 그대로 출연했고, 감독 역시 르루시 그 사 람이었다.

르루시의 기행성이 그대로 표현된 속편 제작이었던 셈 인데, 이야기인즉 〈남과 여〉에서 결합했던 두 사람이 20년 을 살다가 다시 헤어진다는 줄거리다. 이 〈속/ 남과 여〉가 별 인기를 끌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남과 여〉는 르루시 감독의 감각적인 영상이 빚어낸 영 화 미학의 승리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논리 적 구축이 허약한 이 영화에서 많은 결함들을 극복하게 한 것은 아누크 에메의 우수에 찬 연기와 프란시스 레이의 음 악이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영화 속에서 안느의 전 남편으로 분(粉)한 피에르 바루는 주제가 〈남과 여의 삼바〉를 비롯한 많은 노래의 시 (詩)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노래했다.

대 · 리 · 운 ·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시고 출발하세요!

대리운전자와 업체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대리운전자의 신원확인

믿을 수 있는 정식 신고업체 이용

대리운전 피해 예방수칙

믿을 수 있는 정식 신고업체 이용

정식업체 확인 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사전에 요청합니다.

대리운전자의 신원확인

본인이 요청한 내용 및 신원확인으로 대리운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대리운전자와 업체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대리운전 보험가입증명서와 보험회사 24시 콜센터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진 한 장의 悔恨

(中)



#생명력 지닌 제목과 사진

신문지면의 폭발력은 헤드라인과 사진에 의해 결정된다. 담고 있는 정보를 한 순간에 다 드러내는 사진의 특성과 간결한 어귀로 설명하고, 소구(訴求)하고 때로는 선동성까지를 발휘하는 헤드라인의 힘은 더러 폭발적이다.

해방 후 5·10 총선 때 좌익지의 헤드라인, ‘미 함 포사격 권내에서의 남한총선’ 같은 선동위주의 어거지는 덮어둔다 하더라도 4·19때 조선일보의 제1면, 김경환 기자의 어마어마하게 큰 헤드라인. 학생데모대를 학해(學海)의 해일(海溢)로 표현한 그 지면은 보관지 속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꿈틀대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 때 동아일보의 제1면, 경무대 앞에서의 경찰의 일제사격에 의해 무더기로 쓰러지던 학생 데모대의 유혈현장을 생생하게 찍은 이명동(李命同)기자의 그 사진은 역사에 남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신문의 지면 구성에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이런 우스개가 있다. 문학취향의 신춘내기 사회부기자가 화산폭발로 엄청난 재해를 겪은 현지에서 제1신(信)을 띄우기를 “이 참혹한 현장을 만약 하느님이 보았다면 하느님도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이를 받아본 사회부장의 취재 지시는 “하느님 만나거든 즉각 사진 찍어 보내라”

3·15, 4·19때 나는 한국일보에서 사회면 편집을 맡고 있었다. 3·15때 데모 학생 김주열의 변사체사진,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시체로 마산의 부둣가에 떠올랐다. 그 사진이 사회부에서 편집기자인 나에게 넘어왔다. 그 사진은 한국일보 사진부 기자가 찍은 것이 아니라 부산일보 사진부 기자가 찍은 특종사진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그런지 취재부나 편집부 데스크에서 크게 써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쨌거나 김주열의 처참한 사진을 단순히 변사사건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았을 터이 없는데 나는 사방 3단 크기로 지정해서 제판부에 내려 보냈다. 아마 그 사진이 부산일보 특종이라서 후발 재탕을 크게 할건 없다는 판단에서 그 정도 크기로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판을 다 짜고 동판을 받아보니 사방2단 크기로만 들여져 있었다. 부랴부랴 판을 부분 개판(改版)해서 첫판을 만들고, 2판때 사방3단 크기로 다시 짰다. 3단이면 대략 12~13cm 크기다. 그 사진이 부산일보 특종이라 하더라도 그때 그 사진을 다룬 나의 판단력이 크게 잘못된 것으로 늘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사진은 4·19에의 도화선이요, 썩어서 자빠져야 할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뒷날 스포츠조선의 전무가 된 편집기자 조병철은 그때 부산일보 편집부에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전면 폴로 깔았으니 그 때 일을 떠올릴 때 마다 나는 목은 흥터보듯이 찢찢하다.



· 1960년 4월11일 오전11시30분 마산중앙부두에 떠오른 김주열 시신. 부산일보 마산주재 허종기자 특종사진.

김주열! 그 사진 좀 더 못키운게...

편집 기자로 통신사 외신 번역 오류 잡아주기도

기사에 빠진 ‘수직등반’ 대목

60년대 중반(65년이던가?) 동아일보사에서 편집부차장으로 실무를 관장하던 때의 일로 기억하고 있다.

동양통신에서 AFP이던가? 등반 기사가 들어왔다. 「프랑스 등반대가 사상 처음으로 아이거(Eiger) 북벽을 올랐다」는 기사였다. 아이거 북벽은 수직으로 깎아지른 높이 13,000피트의 벼랑이다. 흔히 ‘인간을 거부하는 죽음의 벼랑’으로 표현되는 그 아이거 북벽을 사상 처음으로 올랐다는 그 기사를 보았을 때 나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아이거 북벽을 지그재그 코스로 올라간 등반대는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등반기록의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던 나는 기사에서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다고 보았다. 지그재그가 아니라 직선으로 기어오르는 수직등반이 아니고선 사상초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동양통신에 전화를 걸어 통신의 원문을 다시 챙겨보라고 했다. 틀림없이 수직등반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금 후에 전화가 걸려왔다. “그렇네요, 직등(直登)이란 대목이 번역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그날 동아일보의 ‘횡설수설’에서도 정확하게 그 대목을 지적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홍승면 위원, 글 잘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쓰고 박학다식한 그의 진면목이 빛나는 대목이다.

그 정도의 틀린 외신기사가 그대로 신문지면에 나갔다하더라도 천하대세에 관계없는 일이요, 편집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대목을 편집기자의 독서력이 직무수행에 더러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편집기자의 誤判과 誤字

편집기자에게 귀문(鬼門)은 오판(誤判)과 오자(誤字)다. 그리고 제목의 부적절한 표현도 그 범주에 든다. 오판에는 지레짐작이 주범(主犯)이다. 이를테면 ‘경마장에서 경주중 말이 쓰러져 기수즉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본즉 기수가 죽은게 아니라 말이 죽었다면 편집기자가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제목을 붙였기 때문이다. 오자의 경우는 허다하다. 한자(漢字)를 많이 쓰던 무렵엔 기상천외한 것이 많았다. ‘악서추방’(惡書追放)이 ‘악처추방’(惡妻追放)으로 되면 천하의 공처가들이 박수를 칠만하고, ‘인공수정’(人工受精)이 잘못되어 ‘인구수정’(人口受精)이 되면 이젠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이야기겠지하게 된다. 외설스럽기도 하고...

일본의 신문기사에 ‘명치대제’(明治大帝)가 ‘명치견제’(明治大帝)로 오식(誤植)이 되는 바람에 편집국장 이 물려든 우파(右派)에 맞아죽을뻔한 실화도 있다. ‘천황폐하’(天皇陛下)가 ‘천황계하’(天皇陛下)로 나가면 교정부기자의 목은 견딜 재간이 없을 것이다.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 괴뢰 정권’으로 오식되는 바람에 동아일보사의 권오철 편집부장은 구속되고 동아일보가 정간처분을 받은 ‘괴뢰오식사건’도 있다.

필자는 한국일보에서 사회면 편집을 할 때 재일고교 야구팀의 경기 일정표를 Box처리로 면(面)의 중간에 실었는데 대전에서의 경기일자가 잘못되는 바람에 ‘회사의 행사를 망치는 자’로 지목되어 편집국으로 소리 소리지르며 올라온 장기영 사장을 피해 사외로 달아난 적이 있다. 그 무렵 ‘유엔 총회 개막’ 주제의 기사를 다루며 ‘국제정치문제 토의’라는 부제를 단 1면(정치면) 편집기자가 있었다. 그 기자는 뒷날 부장이 되기는 했지만 어떻게해서 아는 소리 하나마나식 제목을 달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해서 국장단의 대장(臺帳)교정을 거쳐서 활자화되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S신문의 사회면을 맡고 있었던 부장급 편집기자는 어느날 달리던 버스의 바퀴가 빠져 행인을 덮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은 사건의 기사에 제목을 달기를 ‘날아간 차 바퀴에 행인 목사발’이라고 했다. ‘목사발’이란 단어가 이 또한 국장단의 대장 교정을 빠져 나가 활자화되었는지 궁금했다. 그것을 감각적인 표현으로는 보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요즘도 책을 읽다가 오자를 만나면 그것을 고쳐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습성은 내가 편집기자 출신이고 그 귀문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재미다당

3분 후에...

一笑一少

一怒一老

아내가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음침이 동했는지 옆에서 아내를 자꾸 건드리는 것이었다. 이에 참다못한 아내는 전 화중인 친구에게,

“애, 미안한데 끊어야겠다. 우리 남편이 자꾸 나를 건드리네. 호호, 많이 급한가 봐.”

“좋겠다. 지지 배. 그래 좋은 시간 보내라. 그럼 내일 전화해.” 그랬더니 아내 왈.

“아니야~ 무슨 내일까지 가냐? 3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기다려.”

· 가을 역사문화탐방 스케치

대한언론인회 가을 역사문화탐방이 지난 10월11일 실시됐다. 이날 참석한 회우 61명은 안보관광지 도라산(都羅山)전망대와 제3땅굴, 도라산역 등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오후에는 인천 월미도 유람선을 타고 흥겨움에 취하고 낭만에 흠뻑 젖었다. 방문지 스케치를 싣는다.

〈편집자〉



제3땅굴 ...

아직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1998년 정주영씨가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할 때 개통한 통일대교 앞에서 검문 절차를 밟으며 아직도 이 땅에 분단의 비극은 엄연히 존재함을 확인한다. 처음 들른 곳은 제3땅굴. 북한이 휴전선 비무장지대 지하에 굴착한 남침용 땅굴이다. 1978년에 발견되었으며 1시간에 3만 명의 병력과 야포 등 중화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아치형 군사통로다. 한 회우의 “북한이 파놓은 땅굴 덕택에 관광수요가 늘었으니 고마워해야 할 게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가 아이러니컬하게 들리는 것이 작금의 안보실태다.

6·25전쟁 등에 관련된 영상과 제3땅굴에서 발견된 스파이크 핀, 녹슨 볼트 등을 전시한 DMZ전시관을 둘러보았다.

“개성공단 업체 간판이 보인다”

민통선 안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로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쾌청한 날씨 덕에 육안으로도 송악산과 개성공단이 뚜렷하다. 망원경을 통해 북쪽을 살피던 회우가 “개성공단 입주업체 간판이 보인다”며 반긴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선전마을도 시야에 들어온다. 두 마을의 직선 거리는 불과 1.8km. 경쟁적으로 국기 게양대를 높이다 보니 기정동 인공기 게양대 높이는 158m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의 현황설명을 군인으로부터 들었다.

북한으로 가는 첫 번째 역, 도라산역

도라산역은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다. 일반 역 보다 다른 점은 평양 205km, 서울 56km라고 쓴 안내 표지판과 개찰구에 역무원 대신 JSA경비대원들이 서 있는 모습이다. 서울역에서 이곳까지 하루 세 차례 열차가 운행된다. 2002년 한미 대통령(김대중·조지 W 부시)이 서명한 침묵과 경의

老 記者들이 둘러 본 ‘평화와 긴장’ 그 현장



선 침묵 기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입 간판이 눈길을 끈다. 500원을 내고 역 구내로 들어가니 개성~평양방면 타는 곳 안내표지가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른다. 이 철길이 열리면 북한은 물론 베를린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 철길이 열리는 지점이다.

남북교류의 관문이자 유라시아 횡단 철도의 출발점인 도라산역 플랫폼은 통일의 그날만을 기다리며 적막이 감돈다.

‘장단콩’으로 담근 된장... 통일촌의 점심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민통선 안에 자리잡은 통일촌은 ‘장단콩’으로 유명하다.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 품종인 ‘장단백목’은 이 지역 토종 콩

의 혈통으로 ‘신토불이 콩’의 대명사가 됐다. 도둑이 없어 담장이 없는 대신 콩밭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아 담장을 둘러쳐 놓은 것이 이색적이다. 1973년에 조성된 마을엔 133세대에 493명이 동지를 틀었다. 초등학교는 20명으로 꼴찌를 해도 20등이다. 해마다 11월이면 장단콩 축제가 열린다.

장단콩으로 담근 된장과 콩나물, 청정 산채나물과 통일촌 특미로 지은 토속 밥상이 식욕을 돋운다.

유람선의 화려한 쇼 ‘신명’... 낭만도 ‘넘실’

인천 월미도에서 출발하여 인천 앞 바다를 한 바퀴 돌아오는 유람선은 갈매기와 동행을 한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면 멋진 품으로 잡싸게 낚아챈다. 승객들과 어우러진 춤판은 일상의 스트레스는 물론 안보관광지에서 느낀 분단의 회한도 날려 버린다. 954명이 승선하는 1500t급의 유람선은 미동조차 느낄 수 없다. 1층에서는 화려한 쇼를 즐기고, 2층 라이브 카페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젖고, 3층엔 정인(情人)끼리 속삭이는 ‘따로따로 방’이 배치됐고, 4층 전망대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낭만에 흠뻑 빠졌다.

〈사진설명〉

- 사진1 : 도라산 전망대 앞에서 기념촬영.
- 사진2 : 박재권 회우가 망원경을 통해 고향땅 북한쪽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 사진3 : 도라산역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회우들.
- 사진4 : 유람선 4층 전망대에서 술을 마시며 환담하고 있는 강승훈(오른쪽), 이억순 회우.

글·사진 : 이규섭

(본회 회우·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한국기자협회 자료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주간 ‘기자협회보’와 월간 ‘기자통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협회보는 64년 11월 10일 창간돼 유신헌안으로 강제 폐간당했고 80년 언론 대탄압 당시에도 폐간되는 이름을 겪었던 기자협회의 기관지입니다. 또 기자통신은 언론계 전반에 대한 최신 언론이론 및 취재실무, 언론계 시사성 등을 게재한 정통 언론정보지입니다.

자료회원 가입으로 언론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접해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자협회 사무처(전화 734-93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 7만원

■ 온라인계좌번호 : 농협 056-01-002738

■ 예금주 :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회우

언론 대못질 항의 1인시위 현소환 회우

타임머신을 타고 권위주의시대 옛날로 돌아온 느낌이다. 아니 군사독재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 마스크 등으로 눈과 귀, 입을 가린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언론탄압·혈세낭비, 즉각 중단!'이라고 쓴 간판을 목에 건 채 하루 종일 세종로 정부청사 주변을 돌고 있었다.

그는 바로 현소환(玄昭煥) 회우이다. 현소환 회우는 현재 국제언론인협회(IPJ) 본부 이사다. 현 회우는 연합뉴스 사장 역임, YTN 설립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언론계 원로다.

그런 언론계 원로가 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을까? 그는 최근 기자들을 각 부처 기자실로부터 쫓아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



화방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눈과 입, 귀를 가리는 퍼포먼스는 '언론탄압은 곧 국민의 눈과 귀, 입을

“
언론의 자유는
안이한 태도로
지킬수 없다
”

막는 것이라는 점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현 회우는 “언론의 자유는 안이한 태도만 갖고는 지킬 수 없다”면서 정

부가 강행하는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결국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도한다면 언론은 결국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IPJ 본부 이사인 현 회우는 “곧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 IPJ에서도 정부의 이런 정책을 언론탄압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기서 노 정권의 한국 언론 탄압이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언론관이 그대로 반영됐다. 하루 빨리 철회돼야 한다”며 이런 당연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정부청사에서 1인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 회우가 정부종합청사 주변을 돌며 1인시위를 벌이자 경비를 맡은 경찰들은 그가 혹시나 청와대로 향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한다. <筆田>



윤주영 회우 사진전

어머니 The Mothers

“한 사람의 일생에서 어머니는 시작과 끝이다.”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윤주영(尹胄榮·80·방일영 문화재단이사) 회우가 11월 8~29일 대치동 포스코 미술관에서 제27회 개인사진전 '어머니'를 연다.

이번에 개인전에 맞춰 열다섯 번째 사진집 '어머니' (눈빛, 168쪽, 3만3천원)도 발행한다. ☎02-3457-1665.

11월 8~29일 포스코미술관



사진작가로 변신한 尹胄榮 전 장관

“어머니는 우리사회의 원동력”

다큐사진'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동안 14권의 사진집을 출간했고 모두 26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제15회 이나노부오 사진상(1990년) 등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었다.

오십 줄에 접어들어 관직에서 물러나며 우연히 든 카메라 덕에 사진은 그의 '제2의 인생'이 됐다. “수명연장에 불과한 노년의 생존은 무의미하며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생활이라야 진짜 삶입니다” 늦깎이지만 각종 사진상을 수상하는 등 창작욕과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윤 전 장관의 변이다.

이번 사진전에는 아침에 갯벌로 나

가 조개를 잡고, 오후에는 시장에 내다 팔 채소 가꾸기에 온갖 정성을 쏟으며, 밤에는 가전공장에서 일하는 '1인 3역' 어머니의 하루 일상을 카메라 렌즈에 잡아낸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1970~90년대 경제개발기를 지나온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다.

논밭에서, 시장에서, 갯벌에서 담아낸 어머니들의 모습에는 문학적 수사보다 더 진한 감동이 배어난다.

이번 사진전에 '어머니'를 주제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뭘까. 본회 자문위원인 윤회우는 말한다.

“참을성 많고 자식을 위한 희생을 아

전민조 사진전

<한국인의 초상>

한국일보를 거쳐 동아일보 사진부장을 지낸 전민조(田敏照) 회우 사진전 <한국인의 초상>이 10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미사진미술관(송파구 방이동 소재) 20층 제3갤러리에서 열린다.

전 회우는 현장을 기록하고 보도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 음악인 정명훈 부부(1985)

보도사진을 찍는데 그치지 않고 30년 이상을 한국인의 초상을 기록해 왔다.

이번 전시는 한 사진작가의 개인전이라는 의미를 넘어 격동의 한국 역사를 개개인의 얼굴로 함께 느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끼지 않는 우리들의 어머니상(像)이 점점 퇴색해 간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바로 우리네 어머니들이 흘린 눈물과 땀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현재의 고급인력이 양성되고 그 덕분에 경제 발전이 앞당겨진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야말로 한국의 운명을 바꾼 원동력입니다.” 그는 이어 “강인한 한국의 여인상이 내 작업의 소재이자 질료”라고 힘주어 말했다.



· 윤주영 회우는 8순에 접어들 나이에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사진을 고르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윤 전 장관은 현역 사진작가다. 1979년 정계에서 은퇴한 후 사진의 세계에 늦깎이로 입문했지만 국내외 오지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 다큐사진을 촬영, '휴머니즘



제21회 仁村賞 시상식

남시욱 회우등 7명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현승중)와 동아일보사가 제정해 운영하는 제21회 인촌상 시상식이 10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1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남시욱 회우(언론출판부문) 등 수상자 7명에게 상패와 기념메달, 상금 50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교육 부문)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언론출판)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산업기술) △강석중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자연과학) △고범서 전 한림대 한림과학원 석좌교수(인문사회문학) △장순명 밀양영남병원 외과 과장(공공봉사)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특별부문).



· 제21회 인촌상 시상식이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1층 강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강석중 허동수 김정배 김용준 고범서 남시욱 장순명 씨등 수상자들과 현승중 인촌기념회 이사장.

인촌상은 일제 강점기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 김성수(金性洙) 선생의 유지를 잇기 위해 제정됐다.

남시욱 회우는 수상자 인사에서 “40여년간 기자생활의 버팀목이 된 것은

항상 공익을 우선하라는 인촌 선생의 공선사후(公先私後)의 가르침이었다”며 “최근 위헌적 입법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실을 폐쇄해 정부와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약화시키려는 현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레스센터 각종 회의장 새 단장

한국 프레스센터의 19~20층 국제회의장과 기자회견장, 프레스 클럽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은 9월 28일 재개관식을 갖고, 프레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언론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이날 재개관 행사에는 제재형 대한언론인회 회장, 노진환 서울신문사장,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언론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요즘...



김후란 회우 '비추미 여성대상'



· 김후란(金后蘭) 회우(자연을 사랑하는 문화의 집 서울 이사장)=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제7회 비추미 여성대상' 문화·언론 부문인 '달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이사장은 다양한 문화행사로 문화정신 진흥에 기여했으며 신문기자로 일하며 여성지위 향상에 힘써온 점이 평가됐다. 상금은 3000만원이며 시상식은 11월 9일 오후 3시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여기서 '비추미'는 세상을 비추는 존재(비추+미)의 순 우리말 표현으로 해(생명)·달(사랑)·별(희망)을 상징하는데,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비추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 박정하(朴正夏) 회우(서울언론인클럽 명예회장)= 11월 3일 오후 1시 아미가 호텔(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8순 잔치. 한편 박회우는 지난 6월 하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준구 전 미국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등과 함께

미국 아칸소 주정부 명예대사 및 리틀록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 이태영(李台永) 회우(KOC위원)= 10월 15일 오후 5시 올림픽파크텔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시상하는 대한민국체육상(공로부문)을 수상했다.

· 이경남(李敬南) 회우(한국발전연구원 원장)= 10월 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남주홍(南柱洪) 경기대 교수를 연사로 초청,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2008 안보 정제'를 연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재미한인교육진흥재단 초청 강연

· 이용호(李瑬浩) 회우(본회 편집위원)= 미국 시카고 재미한인교육진흥재단(이사장 이상오)의 초청을 받아 지난 9월 22일과 25일 이틀동안 중앙일보 시카고지사 문화관에서 강연.

제목은 <이순신의 생애와 난중일기> <정형시 시조는 세계에서 7개 밖에 없는 보배중 하나이다>. 질의응답도 가진 이날 강연회엔 교포 1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 회우는 또한 시카고 라디오 코리아(사장 조광동) 명사 대담 프로에 현장에서 한국화 개인전을 연 박건서 화

言論街



한국신문협 '50주년' 선포

창립기념일 6월29일로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가 창립 50주년을 선포하고 앞으로 창립기념일을 6월 29일로 변경하여 지키기로 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10월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50돌 기념식을 갖고 최초의 발행인 단체이자 협회의 전신인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가 1957년 6월 29일 창립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제까지 신문협회는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가 한국신문발행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1962년 10월13일을 창립일로 삼아왔다.

헤럴드 홍정욱 사장, 동아TV 인수

헤럴드 미디어의 최대주주인(주)카리아(대표 홍정욱)가 10월 24일 여성 콘텐츠 전문 케이블 채널인 동아TV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헤럴드미디어에 따르면 홍 사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주)카리아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최근 교원나라 벤처투자로부터 우선매수권 6.9%를 포함한 동아TV 지분 74.2%를 매입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주니어 헤럴드, 주간 캠퍼스 헤럴드를 잇달아 창간하는 등 활발한 미디어 경영을 펼쳐온 헤럴드 미디어가 신문 출판 방송을 하나로 잇는 명실상부한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고 심향 박승무씨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사진은 조광동 시카고 라디오코리아 사장, 박건서 화백, 이용호 회우가 대담을 마치고)

출판기념회

· 유한준(兪漢俊)회우는 10월 30일(화)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한국어린이 문화운동 100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아동문학가인 유회우는 최남선·방정환 선생이 1908년 '어린이'란 낱말을 처음 쓴 지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의 발자취를 간추려 방일영 문화재단 지원으로 이 책을 엮어냈다.

·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 제성호(諸成鎬) 중앙대 법대 교수(제재형 본회 회장 장남)가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10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 및 시민단체 등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해복 본회 고문, 임덕규 회우, 이장희 교수(외국어대 부총장), 정기승 변호사(전 대법관), 황진하 국회의원 등이 축하했다.

♡ 자녀 결혼 축하합니다

· 김병무(金炳武)회우 장남 재형군= 11월 3일 낮 12시 라마다 서울호텔(구 뉴월드호텔) ☎ 02)572-0916
· 이구열(李龜烈)회우 장남 주형군= 11월 30일 오후 5시 논현2동

성당 ☎ 019-9403-0307

· 윤익한(尹益漢)회우 차녀 재희양= 12월 1일 오후 1시 서울중앙교회교육원 6층 (안양) ☎ 019-548-9266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노후의 자유, Freedom50+로 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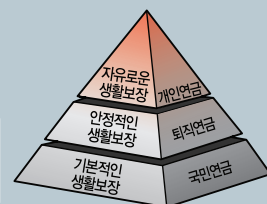
삼성생명 Freedom50+와 함께 내 연금자산을 준비하세요

Freedom50+ 하나

【3층 연금분석 시스템】으로 내 연금자산을 확인하세요

- ❖ 첫째-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분석
- ❖ 둘째-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을 분석
- ❖ 셋째-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개인연금을 분석

당신의 현재 보유한 연금자산 수준과 향후 추가로
필요한 연금자산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층 연금분석시스템은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삼성생명 FC와 상의하세요(대표전화:1588-3114)

Freedom50+ 둘

Freedom50+로 나에게 필요한 연금상품을 선택하세요

- ❖ (무)삼성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적용한 안정추구형
- ❖ (무)삼성 변액연금보험 연령 및 시장상황에 따른 펀드 선택형
- ❖ (무)삼성 리더스변액연금보험 주식편입비율을 높인 투자 선호형
- ❖ (유)삼성 골드연금보험 소득공제는 물론 배당금도 기대하는 실속형
- ❖ (무)삼성 파워즉시연금보험 가입즉시 연금을 수령하는 일시납형

※ Freedom50+ (프리덤 피프티 플러스)는? 고객의 자유로운 노후를 준비해 드리기 위한 삼성생명의 연금자산 브랜드입니다

a partner for life

삼성생명



여자 없이는 살아도 스포츠 없이는 못 산다!

Mr. Sports



스포츠 채널을 한자리에 - skyOrange sports 탄생!

스포츠 마니아를 위한 무려 10개의 스포츠전문채널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87개의 TV채널까지!
TV로 세계의 빅리그와 빅게임을 중계하는 국내 최초의 스포츠 전문 패키지 '스카이 오렌지 스포츠'로 바꾸세요.
프로야구 2회 입장료의 저렴한 시청료로 세계의 모든 스포츠 현장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인기 빅스포츠를 집에서 24시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skyOrange sports 채널 안내			
종합 스포츠	KBSN Sports MBC ESPN SBS SPORTS SPEED SPORTS	골프	SBS GOLF J Golf
스페셜 스포츠	SkyMLB (미국 메이저리그)	레저(바둑/낙시)	Sky바둑 FTV
해외 스포츠	SPORTS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미국 PGA골프 등)	최신 영화	(16개 채널, 월 2편 무료)

※고화질, 고음질, 87개 다채널의 디지털 방송은 기본입니다

skyPVR 서비스에 가입하면

세계의 모든 스포츠를 TV에 저장해서 본다!

스포츠를 완벽하게 즐기고 싶다면 SkyPVR로 보세요.
제 시간에 볼 수 없다면 예약녹화, 한 편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시리즈녹화, 잠깐 TV를 멈추고 싶다면 타임머신 서비스까지~ 당신의 TV생활이 완벽해집니다.

우리집 맞춤TV skyLife



가입하면 스포츠가 즐거워진다!

1588-3002
가입센터 shop.skylife.co.kr